

저학년의 눈으로 바라본 한 주의 소식

9살 신문

2022.09.08

어린이언어연구소 @langlab_kiz 발행

스위스 빙하가 녹고 있어요

1935년



2022년



스위스 빙하가 녹고 있어요

스위스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요. 지난 85년 동안 스위스 빙하의 반 정도가 없어졌어요. 연구자들은 옛날과 현재의 빙하 사진을 비교해 봤는데요, 10년마다 서울 여의도 30배 정도 크기의 빙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어요.

빙하는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큰 온도계와 같다고 해요. 특히 2016년 이후 현재까지 6년 동안에만 12%의 빙하가 더 줄었어요. 지난겨울 눈이 거의 내리지 않은 데다가 올여름 심한 더위 때문에 스위스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.

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으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, 주변 자연 모습도 변해서 관광하러 오는 사람도 줄어들 거예요.

또한 세계 각국이 지금부터라도 환경오염을 재빨리 줄여나간다고 해도 이번 세기말까지 현재 빙하의 60%가 더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.

오늘 기사를 읽고 맞춰 보아요!

✓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

스위스 □□ 가 빠르게 녹고 있어요.

✓ 맞으면 O, 틀리면 X 하세요.

빙하가 녹아서 85년 전보다 빙하가 반 정도 줄어들었어요.

[]

환경오염을 줄이면 빙하가 더 이상 녹지 않는다고 해요.

[]

모르는 단어를 알아봐요!

✓ 빙하

수백 수천 년 동안 쌓인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한 것

✓ 기후 변화

일정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날씨 변화

✓ 세기

백 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

✓ 전망

앞날을 미리 생각해봄